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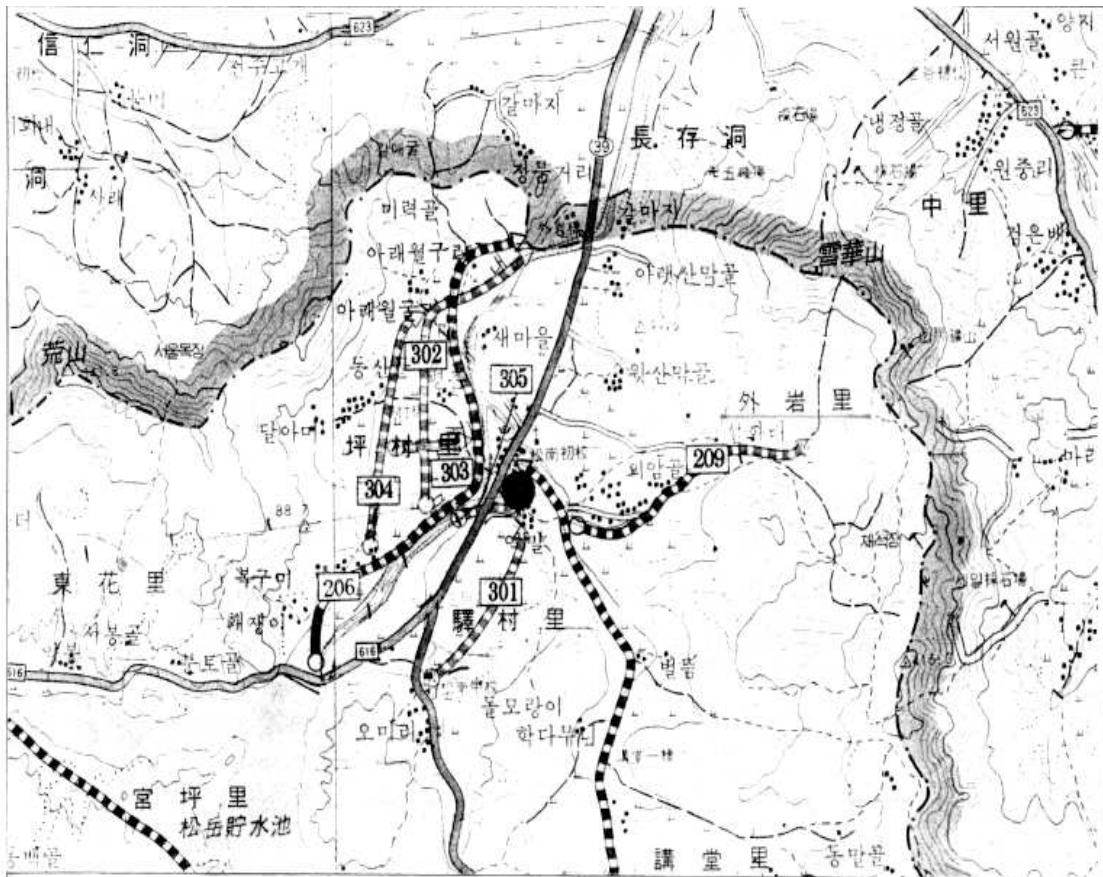
외암리·外岩里

외암리·外岩里

< 구연자 : 송악면 외암리 이득선씨 >

외암리는 송악면에 속한 마을로 외암이란 마을 이름은 이정희 6세손인 이간 (1677~1727)의 호가 외암인데서 비롯되어 외암리라 불리게 되었으며, 외암리는 오양골, 삼박골, 새마을로 이루어 졌으며, 외암 1리는 전통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외암리의 호구 수는 총 232호로 인구는 총 721명으로 남자 383명, 여자 338명이 살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래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신흥역이 있을 때 말을 가두어 먹이던 곳으로 오양골이라 하던 것이 인종때 장사랑 이연이 와서 살고 그 6대손 학자 이간의 호를 외암이라 하였으므로 마을 이름도 따라 외암골이라 하다가 1914년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외암리 위치도 >



☒ 오양골, 삼박골, 새마을 (외암리)

외암1리는 오양골, 설화리로 이루어 졌으며, 외암리의 대표적인 마을로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이며, 이름을 '오양골'이라 부르는게 된 유래는 옛날 신흥역이 있을 때 이 마을에 말을 가두어 먹이던 곳이라하여 오양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기와집과 초가집의 옛모습들이 남아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양골이라 불리게 된 유래는 신흥역이 있을 때 말을 가두어 먹이던 곳으로 오양골이라 하던 것이 학자 이간의 호인 외암을 따서 외암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마을 입구에는 강당골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고 입구 우측에는 물레방아가 있어 입구에서부터 옛정취를 물씬 느낄수 있다. 오양골 위쪽에 있는 설화리 마을은 일반 가옥들로 형성되어 있으며, 송암사라는 큰절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본래 이곳은 절터였다고 한다.

외암 2리는 온양에서 송악으로 오다보면 온양과의 경계인 다리가 있는데 그곳을 넘으면서

좌측으로 위성통신시설이 갖추어진 데이콤 주변으로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다. 마을을 바쳐주고 있는 산은 온양지방에서 영엄하다는 설화산으로 그 산 밑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외암 2리는 삼막골이라 부르는데 이곳은 세개 파의 박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하여 삼박골이 변하여 삼막골이라는 유래가 있고, 산 막바지에 자리하고 있다해서 삼막골 이라 하였다는 유래도 있다. 또 한가지는 만막골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에 사람이 많다 하여 불리워지다 삼막골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다. 본래 이곳의 이름은 구산리로 마을 입구에 거북모양의 바위가 있다해서 구산리라 하였지만, 지금은 구산리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삼막골 이라 불리고 있다. 삼막골 마을은 두 개의 작은마을로 구분 되는데 데이콤에서 좌측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이 윗삼막골이고, 앞과 우측으로 위치한 마을을 아랫삼막골이라 부른다. 윗삼막골에는 함양박씨가 주로 살고 있으며, 아랫삼막골에는 밀양박씨, 순천박씨가 살고 있다. 마을에는 두 개의 절이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돌미륵이 두 개가 보존되어 지고 있는데 하나는 용화사라는 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아랫삼막골에서 무속인이 관리하고 있다.

외암3리는 역말로 들어가는 역촌교 입구에 위치하며, 새마을이라 불리게된 것은 송악저수지가 생기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 살게 되어 새롭게 마을이 생겼다해서 새마을이라 하게 되었는데, 그이전에는 이곳에 세집이 살고 있어 세집매라고도 불렀다 한다. 세집매라는 이름은 일제시대까지 불리웠으나 송악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새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十 아산 외암 마을

아산 외암 마을은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 2호로서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면적 205,073㎡로 1988년 8월 18일에 지정되었으며 관리는 아산시로 되어 있다.

외암 마을은 설화산을 주봉으로 그 남쪽 경사면에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주택은 거의 서남향, 남향이며, 지형 조건에 따라 마치 큰 나무가지 형상을 하고 있으며, 조선 명종(1545~1567년)때 이연 일가가 이곳에 이주하면서 후손이 번창하여 마을에 있는 기와집은 대개 100년~200년정도의 충청도 반가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十 아산 외암리 참판댁

아산 외암리 참판댁은 중요민속자료 제 195호로 외암리 88번지에 있으며, 총 큰집은 3동 작은집은 2동으로 총 5동의 집으로 1984년 12월 24일 지정되었으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득선씨로 이 건물의 건축연대는 19세기 말로 추정되며 구한말 직학사와 참판을 지낸 이정렬공이 고종황제로부터 하사 받아 지은 집으로 평면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중부방식을 따랐지만 작은집 사랑채만은 남도풍을 가미하였으며, 집안의 살림살이 가구도 비교적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잘 짜인 충청도 반가의 전형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十 연엽주

연엽주는 충청남도 무형 문화제 11호로 1990년 12월 31일에 지정되었으며, 기능 보유자는 최황규(여)이다. 참판댁에서 고종께 진상했던 연엽주는 예안 이씨 가문에서 대대로 종부에게 전수되어 온 양조기술로 제주나 손님접대용으로 연꽃잎을 넣어 빚는 기술이다. 이득선의 고조인 이원집(1829~1879)이 쓴 치농「治農」이라는 필사본에 연엽주의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十 아산 건재 고택

아산 건재 고택은 중요 민속 자료 제 233호로 외암리 196번지에 있으며, 지정일은 1998년 1월 5일로 총 5동의 안채, 사랑채, 문간채, 가묘, 하인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준경이다.

조선 숙종 3년(1677)에 현 소유자인 이 준경씨 9대 선조인 외암 이간이 출생한 가옥으로 소유자인 증조부인 건재 이상익공이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사랑채에 이간공의 교지가 보관되고 있고, 이상익공이 전라도 영암군수를 지내 일명 영암댁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며, 특히 정원이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그대로 살린 아름다운 반가의 집이다.

<조사당시 외암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오양골 마을은 위도 36-43-50, 경도 127-01-20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화산 밑으로 밀집되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을 오기 위해서는 온양 송악사거리에서 공주로 가는 39번 국도를 타고 6km정도 오다보면 송악면 면소재지인 송악(역말)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송남 초등학교와 송악농협 가운데로 나 있는 길로 1km정도 들어가면 외암민속마을이 나온다. 현재는 유구방향으로 새로난 도로가 나 있는데 송악과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유구방향으로 200m정도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외암민속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나 있고 이정표를 발견할 수가 있다.

삼막골 마을은 위도 36-44-10, 경도 127-01-2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온양에서 송악으로 가는 도로변을 따라가다 보면 갈마지라는 마을을 지나 설화산 밑에 위치한 마을이 보인다. 마을 중앙에는 위성통신 데이콤이 자리하고 있으며, 면소재지인 송악과는 500m정도 못미쳐 위치한다.

새마을은 위도 36-43-40, 경도 127-00-40에 위치하며, 면소재지와는 불과 역촌교 다리 하나를 경계로 나뉘어 있으며, 39번국도를 따라 역말로 진입하기전 우측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앞쪽으로 유구로 가는 새로운 도로가 나 있으며, 외암2리 삼막골과는 700m정도 떨어져 있다.

2) 현 황

오양골 마을의 인구는 남자 179명, 여자 139명으로 총 318명이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102호에 이른다. 이중 85호가 오양골에 모여 살고 있는데 이중 65호만이 민속마을 전통가옥으로 지정받았고, 설화리에 나머지 17호가 살고 있으며, 농업 95%로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다.

삼막골 마을에는 남자가 136명, 여자가 136명으로 총 272명이 살고 있으며, 가구수는 84가구에 이르며, 농업을 90%에 종사하고 있다.

새마을졌으며 인구수는 남자 68명, 여자 63명으로 총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구수는 46호로 작은마을이며,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오양골 마을	318명	179명	139명
삼막골 마을	272명	136명	136명
새마을 마을	131명	68명	63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기타 서비스업
오양골 마을	100%	95%	5%
삼막골 마을	100%	90%	10%
새마을 마을	100%	100%	-

오양골 마을 농경지현황을 보면 논 42.4ha, 밭 7.4ha로 논농사가 월등하게 많으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등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다.

삼막골 마을의 농경지는 논 24ha, 밭 12.3ha에 이르고,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분무기, 이앙기, 관리기, 탈곡기, 콤바인, 건조기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새마을 마을의 전체 논의 면적은 4.4ha이고 밭은 2.3ha로 다른 마을에 비해 턱없이 농경지가 부족하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탈곡기, 콤바인, 건조기등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뿐이며, 다른 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오양골 마을	49.8ha	42.4ha	7.4ha
삼막골 마을	49.6ha	42.2ha	7.4ha
새마을 마을	6.7ha	4.4ha	2.3ha

- 문화 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오양골마을	1개소	1개소	-
삼막골마을	1개소	1개소	-
새마을마을	1개소	1개소	-

오양골마을의 성씨별 분포로는 이씨들의 집성촌인만큼 예안이씨가 41%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김씨, 윤씨의 순이다. 연령층은 60대가 가장 많으며, 10대와 50대도 많은 편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음은 아직 옛부터 이어오는 가정교육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젊은층이 많다 보니 자연적 학생들도 다른 마을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삼막골마을의 성씨별 분포로는 박씨 23%, 김씨 13%, 기타 성씨가 64%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별 분포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새마을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이씨 17%, 김씨 15%로 주를 이루며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대부분이 송악에 있는 송남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마을에서 1km정도 떨어진 송남 중학교로 통학을 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 씨	이 씨	윤 씨	박 씨	기 타
오양골마을	102호	18호	42호	5호	2호	35호
삼막골마을	84호	20호	-	-	11호	53호
새마을마을	46호	7호	8호	-	-	31호

- 최고령자

삼막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나 진호 할아버지로 87세이시며, 건강하신 편이고 아랫 삼막골 살고 계시며, 새마을마을의 최고령자는 최 을분 할머니로 92세시며, 활동이 불편하시다.

3) 자연 경관

오양골 마을을 들어서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옛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물줄기의 힘으로 돌고 있는 물레방아가 있고, 마을 뒤쪽으로 설화산에 등 기대어 배산으로 삼고, 마을 앞으로는 작은 냇가 흘러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세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길옆으로 조상의 숨결을 물씬 풍기는 돌담장이 둘러싸고 있는데 담장 길이를 모두 합하면 무려 5,000m나 된다고 한다. 잘 가꾸어진 양반가의 기와집과 허스름하지만 정감이 가는 초가집이 조화를 이루어 옛정취가 느낄수 있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오양골 위쪽으로는 설화리라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같은 마을로서 이곳에는 큰절이 하나 있고, 오래된 돌미륵이 세워져 있다.

삼막골마을은 온양에서 송악으로 가기전 송악면의 경계가 있는 다리 좌측으로 위치하며, 마을 옆으로 위성통신 데이콤이 크게 지어져 있다. 설화산 밑에 위치하고 있어 유난히 돋보인다. 뒷삼막골에는 넓이가 세아름이나 되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고, 마을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모여 휴식을 취하기도 하며, 마을 안쪽으로는 절이 두 개 있어 풍경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 뒷삼막골 앞으로는 넓다란 들판이며, 아랫삼막골 옆으로는 송악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큰 냇가가 있다. 아랫삼막골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위성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데이콤 아산지국이 있다.

새마을마을 앞으로는 외암소류지가 흐르며 마을의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있고 가옥은 소류지 옆과 39번 도로 주변에 위치해 있다. 마을의 지형은 평준하며 평촌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4) 마을의 변천과정

오양골, 삼막골, 새마을은 본래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시흥역이 있을 때 말을 가두어 먹이던 곳으로 오양골이라 하던 것이 인종때 장사람 이연이 와서 살고, 그 6대손 학자 이간이 호를 외암이라 하였으므로 마을 이름도 따라 외암골이라 하다가 1914년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오양골 마을은 조선 명종때(1545~1567) 장사랑 벼슬을 지낸 이정이 일가를 이끌고 낙향하여 예안 이씨의 집성촌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 내력만도 450년이 넘는다. 오

양골 마을만 현재 가구수는 85호인데 민속마을 전통 건조물로 지정받은 호구수는 65호라고 한다. 이곳에서 예안 이씨들이 14대째 살고 있으며, 조선 명종때라니 서기 1545년 약 455년경 형성된 것으로 추측이 되며 예안 이씨가 터를 잡기 전에는 옥씨와 강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마을 형성년대는 훨씬 이전이 될 듯 싶다. 마을은 78년도에 도지정 민속마을에서 88년도에 중앙 정부 전통 지정 민속마을로 되었다고 한다. 30~40 년 전까지만 해도 예안 이씨가 주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성씨가 들어와 살고 있다. 현재는 옥씨와 강씨는 거의 없고, 예안 이씨가 대부분이다.

삼막골마을은 박씨들의 집성촌인데 밀양 박씨와 순천 박씨는 아랫 삼막골에, 함양 박씨는 윗삼막골에 살고 있는데, 함양 박씨가 13대째, 밀양 박씨가 10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함양박씨가 가장 먼저 들어와 터를 이루었으며, 이 마을의 역사는 서기 1600년경 약 390년쯤으로 추정된다.

새마을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곳에 세 집이 살고 있어 세집매로 불리우다 송악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살던 20가구 정도를 정부에서 새마을에 지어주어 살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터를 잡은 분은 정인화씨로 2년전까지 마을 이장을 하였으며 마을에서 5대째 살고 계셨다. 따라서 형성년대는 서기 1850년경 약 150년 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이 가구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50년정도밖에 안된다.

6) 지 명

十 오양골 마을 지명

·외암골 : 시흥역이 있을 때 말을 가두어 먹이던 곳으로 외양골이라 하였는데 인종 때 학자 이간이 살면서 그의 호 외암을 따서 외암골이라 하였음.

·구산리 : 오양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산막이 있음.

·설화리 : 설화산 밑에 있는 마을.

·설화산 : 산의 정상이 붓끝 모양으로 몽뚱하다 하여 문필봉이라 하며 이곳에서 많은 문필가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또 이곳에는 칠승팔장 지지의 명당이 있어 예로부터 투장이 성행하여 가뭄이 들곤 하였다 하여 지금도 가뭄이 들면 투장한 곳을 찾아 파헤치고 기우제를 지내는 관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음.

·찬샘골 : 오양골 뒤에 있는 골짜기. 찬샘이 있음.

·북바위 : 찬샘골 위쪽에 있는 바위. 북처럼 생겼음.

·북박골 : 북바위가 있는 골짜기.

·삼박골 : 오양골 뒤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바위가 있다.

·반석 : 오양골 입구에 있는 반석. 냇바닥에 깔려 있고 마을쪽으로 반석들이 누워있는데 위반석에는 "외암동천" 낙자의 대자와 그 옆에 "이용찬서"의 작은 자를 새기었고, 아래 반석에는 "동화수석"의 대자와 "이백선서"의 소자를 새기었음.

·외암 부조묘 : 오양골에 있는 영조때 학자 문정공 외암 이간의 불천지위 사당.

·이간 신도비 : 오양골 오른쪽 산기슭에 있는 비. 영조때 학자 외암 이간의 묘에 세웠는데, 그 제도가 매우 장대함.

·송암사 : 설화리에 있는 절로 1936년에 세워졌다. 불타고 없어져 새로 절을 지어 지금은 설화사로 불리고 있음.

·미륵불 : 송암사 터에 남아 있는 불상으로 높이 210cm, 넓이 65cm로 당당한 체구이며, 설화리 뒤에 있음.

十 삼막골마을 지명

·산막골 : 외암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산막이 있었음.

·윗산막골 : 산막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윗 산막골이라 함.

·아래산막골 : 산막골 아래쪽의 마을이라 하여 아래 산막골이라 함.

·열승정(閱勝亭) :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에 있었는데 이사종(李嗣宗)의 건축(建築)으로 유명하였다. 이사종은 예안인(禮安人)으로 선묘조(宣廟朝)에 별제(別提)하고 친상(親喪)으로 인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화산(華山) 남쪽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열승(閱勝)이

라 하였던 것이다. 간양(簡榮) 최 지(崔芝)의 글과 시가 있었으나 지금은 정자와 같이 없어졌음.

·용화사 : 외암리 산 22번지에 있는 절로 1940년에 고치화가 세웠음.

·석가여래상 : 윗삼막골 용화사에 있고 하반신이 대부분인 땅에 묻혀 있는 형상으로 전면만 조각되었음.

·느티나무 정자 : 마을 중앙에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다. 매년 음력 정월에는 부락에서 장승제를 지냈음.

十 새마을 마을 지명

·새마을(세집매) : 산막골 위쪽에 있는 마을. 세 집이 살았음.

·외암소류지 : 외암리에 있는 만수량 60천톤인 소류지.

·열녀안동권씨 정려 : 열녀안동권씨는 진사를 지낸 전연의 딸로 예안 이씨가 출가하여 열녀의 품행인 후세의 구기감이 되어 예안 이씨 문중에서 정려를 세월 안동권씨의 열행 및 품행을 기리고 있음.

7) 전 설

十 설화산에 관한 전설

설화산은 정상이 붓끝 모양으로 몽뚱하다 하여 문필봉이라 하고, 이곳에서 많은 문필가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는 칠승팔승지지의 명당이 있어 옛날부터 이곳에 투장이 성행하여 가뭄이 들곤하였다고 하며 지금도 가뭄이 들면 투장한 곳을 파헤치고 기우제를 지내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설화산이 연꽃 모양의 형상이라 연암봉이라고도 부른다. 「택리지」 「충청도조」에는 차령에서 서쪽으로 뻗친 맥이 북쪽으로 떨어져 광덕산이 되고, 또 뻗어져 내려 설화산이 되어 온양 동쪽에 위치한다고 나왔는데, 설화산은 하늘 높이 솟아 모양이 탁홀과 비슷하다 하였고, 아산의 남동쪽으로 길방이라 함은 아산, 온양의 여러 마을의 작문에 현달한 선비들이 많이 태어난 사실에서도 나타나며 책에 나와 있는 설라산이란 이름은 분명 설화산이 맞을 것이라 한다. 아산의 인물인 맹사성을 낳기전에도 그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설화산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十 망부석에 관한 전설

비단 장수가 망부석 옆에서 쉬다 잠이 든 사이에 비단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그 사실을 관가에 알려 이승렬에게 도움을 청하자 곰곰히 생각을 하던 이승렬은 망부석을 가지고 오라고 시킨다. 그러자, 주위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의아하게 생각을 하던 중 망부석을 가져오자 사정 없이 곤장을 치라 시켰다. 주의 사람들이 웃고 웅성거리자 하던 일을 멈추고 여기에서 웃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달라고 하자, 범인은 일부러 어떻게 할까 궁급해하며 웃는 사람들 속에 끼어 나가게 되었고, 이간의 지혜로 범인을 잡았다고 한다.

十 이간 선생의 소년 시절의 일화

당시 이고을에는 강씨가 수백여년동안 살았 왔다. 어느날 강씨의 꿈에 흰수염의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마을에는 강씨 운이 다 했으니 뒷집의 이간에게 집과 토지를 넘기고 당장이 마을을 떠나도록 하라."하고 백발 노인은 연기같이 사라졌다. 강씨는 헛된 꿈이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전날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또 나타났다. "네 이놈. 내가 이마을에서 당장 떠나라고 했는데 네 놈이 멸족의 화를 당하고 싶으냐? 어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강씨는 하루종일 그 꿈을 생각했다. 멸족의 화라고? 설마, 설마.... 그날 밤 백발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성난 목소리로 "네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다. 당장 이 고을을 떠나도록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멸족의 화를 입으리라."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강씨는 날이 밝는 즉시 이간의 집으로 찾아갔다. "내 자네에게 부탁하네. 제발 우리집과 땅을 사주게나." "어르신네도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난뱅이가 어떻게 그 많은 토지를 샅니까?" 강씨는 이 간에게 차초지중을 다 설명하였다. "그러니, 다는 안되더라도 어떻게 조금 안되겠나?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값을 치르고 사가게." 이간은 돈을 융통해서 강씨의 토지를 사게 되어 그 뒤 이간은 강씨의 재산을 갖고 살게 되었다.

十 용화사에 고덕례 주지스님에 대한 전설(삼막골 마을 전설)

노스님이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몸이 너무 아파 시집살이를 못하겠어 다시 친정으로 돌아 오게 되었다. 그때 친정은 송악에서 비단가게를 하고 있었다. 원래 시집 가기 전에도 매일 같이 공부만 했었다고 한다. 그런 딸을 아버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딸을 불쌍하게 여긴 어머니는 현재의 외암리 1구 송암사 터에 막사를 지어 그곳에서 지내게 했다. 가시덤불에 쌓여 있는 미륵을 돌보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에 도포를 입은 미륵이 나타나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며 자기에게 오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그러자, 스님은 싫다며 거부를 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꿈이 너무도 생생했다고 한다.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또 거부를 하자 미륵이 한쪽 눈을 찌르겠다고 하며 협박했지만, 스님은 모시고 있는 미륵을 버릴 수 없다며 거부하자, 미륵은 스님의 한쪽 눈을 찢렸고 놀래 잠에서 깬 스님은 한쪽 눈에 통증이 심하고 보이지가 않았더라. 그날 꿈 속에서도 미륵은 또 스님께 나타나 자기에게로 오라고 요구를 했지만 거부를 하자, 이번에도 마저 한쪽 눈을 찢르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꿈 속에 나타나 말하던 장소를 찾아가니 가시덤불에 감겨 있고, 가슴까지 흙이 덮혀 있는 미륵이 있었는데, 꿈 속에서 본 미륵과 똑같았다고 한다. 그후로 이곳에 절을 짓고 돌미륵을 모시며,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十 상여바위에 관한 전설

옛날 마을에서 초상이 나서 상여가 지나가는데 그곳에 이르자 상여가 갑자기 승천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이곳에 있는 바위를 상여바위라 부르고 있다.

十 돌미륵에 관한 전설

아랫삼막골에는 무속이 모시고 있는 돌미륵이 있다. 돌미륵 뒤에는 큰 참나무와 소나무가 묘하게 붙어서 자라고 있는데 참나무가 소나무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그곳에 있는 돌미륵은 머리가 잘려나가 무속인이 이곳에 와 자리를 잡으면서 얼굴을 만들어 주었는데 자연 석위에 얼굴을 시멘트로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어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돌미륵의 전설로는 옛날 이돌미륵이 마을을 지키던 것으로 마을 맞은편에 있는 월구리 용담사에 있는 돌미륵과 싸우게 되었는데 이 마을에 있는 돌미륵은 머리가 잘려나가고, 월구리에 있는 돌미륵은 어깨가 부서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나, 월구리에 있는 용담사 돌미륵의 어깨가 부서진 것은 사실이다. 무속인의 말로는 돌미륵 앞에서 소원을 빌면 모두 이루어지는 영험한 돌미륵이라 한다.

十 장수바위

옛날 조선시대에 한 거인같은 큰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좀 덜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몸집에 비해 성격이 온순하고 일도 잘해서 마을 사람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일을 시키곤 했다. 이 마을에는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농사보다 평민들이 지은 곡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다 그 거인같은 녀석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주는 그 총각을 불러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저녁때가 다 되었을 때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쌀을 좀 갖다 주라고 시켰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속에는 무서운 산짐승들이 많을 때였다. 그러나 그 총각은 순순히 허락했다. 울퉁불퉁한 험한 산길을 깜깜한 밤중에 그것도 산짐승이 날뛰는 곳을 가리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날밤 마을 사람들은 요사스런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며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총각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산속을 뒤졌다. 한참을 찾아보니 총각의 자취는 간곳 없고 그의 신발만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그 옆의 큰 바위에 그 총각의 발자국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마을에 옮겨다 놓고 제사를 후하게 치러 주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총각이 색시로 변한 여우에게 홀려서 온 산을 헤매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쨌든 그 총각의 발자국은 몇 년이 지난후 임진왜란시 왜놈들이 이 마을을 침략했다가 그 발자국을 보고 놀라 달아났다고 전해진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오양골마을에서는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속놀이나 행사들이 이어져 오리라 기대했지만, 별다른 놀이는 없었고, 칠월칠석날에 풍물놀이와 돼지를 잡아 서로 나누며 하루를 즐긴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에는 사당이 있는데 영조때 학자 문정공 외암 이간의 불천지위 사당이다. 비는 마을의 산기슭을 따라가다보면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학자 외암 이간의 묘 앞에 세워져 있으며 매우 장대하다. 정문에는 진사를 지낸 전명의 딸로 예안 이씨가

에 출가하여 열녀의 품행이 후세에 귀감이 되어 예안 이씨 문중에서 정려를 세워 안동 권씨의 열행 및 품행을 기리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는 미신이 성행했는데 왕신단지라하여 단지를 방안에 넣어두고 소원을 빌다보면 단지에 반딧불만한 벌레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신이라 믿어 매일 같이 정성을 드려 단지에 기도를 하였다고 하며, 정성을 제대로 드리지 않거나 왕신단지를 함부로 대하면 왕신이 나와 해를 입힌다고 믿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몇집에서는 왕신단지를 모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뒤쪽으로 있는 설화산은 칠승팔장지지의 명당이 있어 그곳에 투장을 하게되면 인근지역이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뭄이 들면 마을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투장을 했는지 확인하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삼막골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전체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아랫삼막골 돌미륵을 모시고 있는 무속인이 산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박씨들이 제사를 지낸다. 옛날에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남자와 여자로 편을 갈라 경기를 해서 여자가 이기면 그해 보리 농사가 잘되고, 남자가 이기면 쌀농사가 잘된다고하여 매년 이어져 오다 해방후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새마을 마을은 역사가 짧은 탓인지 이어져 오는 전통놀이나 행사 또는 계등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오양골마을에서 소개할만한 인물이라면 당연히 이간선생을 들수 있으며, 삼막골과 새마을에는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 아쉽다.

十 이 간

이간 선생은 1677년(숙종 3년)에 나시고 1727년(영조3년)에 돌아가신 조선시대 학자이었다. 자는 공거, 호는 외암. 추월헌이었고, 본관은 예안이며, 권 상하의 문인이었다. 1710년 숙종 36년 장릉 참봉으로 천거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그후 6년 뒤 회덕현감, 경연관을 거쳐 충청도 관찰사겸 해운관, 세자익위사 익위 등을 지내셨다. 강문팔학사의 한분으로서 인물의 성은 동일하다는 인물동성론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다. 51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으며, 지금의 마을에서 마주 보이는 삼신당이란 곳에 묘비와 함께 모셔져 있다.

十 이정렬 열사

이정렬 열사는 예안 이씨로 호는 퇴호, 서기 1865~1949년의 시대인이며 출생지는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이다. 열사는 부지런하고 강직 하시기 때문에 많은 요직을 거치시게 되었는데 끝내는 그 벼슬이 참판에까지 이르시게 되었다. 선생은 판서직이었으나 왜놈 당시 직이라 하여 그전에 벼슬인 참판으로 강등하여 행세했고 또 단발령과 을사조약 등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상소문을 수차 임금께 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퇴직하시고 일제의 침략이 날로 우리 강토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온 천하에 못된 것 마을 행하고 또한 우리나라 정치가 날로 어지러워 감히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개탄하시어 조정에 입관시에 말을 거꾸로 타시고 낮에 등부를 밝혀 들고 "우리나라 조정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어두우나?"고 하시며 임금님 안전에서 바른 말을 하시며, "차라리 3살 먹은 어린애 죽는 꼴은 불지연정 나라 망하는 꼴은 차마 못보겠다."하시면서 벼슬에서 사직을 하시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셨다. 한나라의 백성된 도리로서 나라일을 걱정하는 일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간신이었던다면 정세야 어찌 됐든 듣기 좋은 말로 임금의 환심을 사려 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충신의 진정한 용기와 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낮에는 산과 들에 나가 나무도 하고 약뿌리를 캐면서 전답을 보살피면서 농사일에 임하고 야간으로는 정사계책을 쉬지 않고 고심하면서 왜놈을 물리칠 고심 연구 끝에 본가에서 십여리 떨어진 부지에 "칠은사"라는 조그마한 암자를 건립하고 각처에서 충의의 뜻이 있는 동지 일곱 사람을 모아 총사가 되어 한달에 일회씩 모임을 갖고 국사를 의논하는 일에 노심초사하며, 게으름이 없으셨으며, 특히나 왜놈을 해인이라 즉 미친한 물고기라하여 왜놈을 비유하여 낚시질하러 가자는 것으로 아주 멀리하고 능멸하는 말로써 신호와 비밀 암호로서 통용되었고 사람을 고기로 보았다는 것이 아주 이색적이라 할 만치 예나 이제나 변함없는 왜놈들의 인간답지 않은 행동, 우리에게 대한 잔인한 행위를 증오에 찬 말로 표현한 것은 우리도 일본인들을 다시 생각게 하는 역사적인 현실이라 본다. 날로 심각해 가는 일본의 침략을 비분강개한 나머지 식사를 수일 전폐하시기도 하고 말로 형용 못할 만큼 걱정을 하며 국모를 살해한 철천지 원수를 갚을 길을 의논하고 때로는 왕에게 무려 30여통에 달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왕 면전에 나가 얼굴을 맞대고 죽기를 한하

고 1시간 정도나 직언을 연하니 왕이 노하여 극형에 처하라는 명이 이르렀는데 여러 대신들과 충신이 간하는 바에 의하여 간신히 극형을 모면했으며 당나라의 이선감이와 같다고 연삼일이나 신문에 게재 되었다. 또는 독립투사에게 약간의 자금을 조달하며 지원하기도 하고 각처의 애국지사에게 상황의 실태를 통문으로 돌려 그들의 애국심에 부채질도 하였고, 진퇴에 유익한 정보 연락을 취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일본 헌병이 몰래 마루밑에 숨어 들어 발각된 후로는 요시찰인이라 낙인이 찍혀 일본 헌병이 매일 집에 와서 감시하여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았다.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쓰려고 장만해 놓았던 장검과 중검 단도가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일본 헌병의 감시 아래 집안에 감금되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한가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회유정책을 끝까지 물리치셨다. 그러던 중 고종이 친서로 수차 입궐하라는 서찰을 보냈으나 입궐하지 않고 상소문만으로 정사에 대하여 본인의 뜻과 의사를 표시할 따름이었다. 왕은 강직한 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이중정'을 곧고 맵다는 '정렬'로 곧고 맵다는 '정렬'로 바꾸라는 명을 내려 이름을 '이정렬'로 바꾸게 되었다. 이같이 주의심이 강한 그는 일찍이 고종으로부터 가옥 한채와(4동 80평의 큰 고택, 현존) 은잔 네 개와 관복 일구 또는 관복감 일구「일심사군 퇴호거사」라는 호를 하사 받았고 만년에는 후배양성에 힘을 모아 많은 현인을 배출해 내세. 제자들로써 현재 칠십 ~ 팔십이 넘는 분들이 생조내 있다. 노소 합하여 차례를 올린다. 또 칠은사 사당위장을 모신데는 일년에 일회씩 칠일자손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낸다. 독서에는 부지런하고 일신의 영화에는 검소하며, "육경책을 통하여 베풀어 토대로 삼으라. 또 선한 것을 돌려 주고 악한 것을 감추어 주고 손님한테 도리를 잘 할지이다. 이것이 자손 세대에 닿는 업이다." 하시며 "세 번을 생각하고 한 가지 일을 하고 종결을 맺어 놓고 후회를 하지 마라. 자신만만하게 해 낼 일이라도 백 번을 참으라." 하였도 "타인의 물건은 티끌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거든 생각지를 말고 만사에 욕심을 버리고 학문에만 욕심을 가지라"하였다. 배우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관직은 34세때에 조정으로부터 퇴조하여 여생을 우국과 후진양성에만 아바지 하시다가 83세에 졸하였다. 저서에는 「퇴조 유포」 문헌에는 「고종실록」 「국조인물록」 「정원일기」 편이 있다. 한 나라의 충신으로서 조국을 위해 자기의 부귀영화를 저버리고 녹을 먹는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그를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다.

十 이 성열(李聖烈: 고종 2년 1865~?)

사호는 퇴암, 본관은 예안, 외암, 이간 선생의 6대손, 상훈의 아들로써 아산군 송악면 출생이다. 고종 25년 (1888) 관관으로 별식문과에 급제(내과), 5개군 군수를 거쳐 전라, 경상도감찰사를 지내고 이어 가선대부(의정부참찬원임(嘉善大夫議政府參贊原任), 규장각직학사겸시강관(奎章閣直學士兼侍講官)등을 역임했다. 고종 44년 (1905) 을사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지자 사직하고 여주에 은거(隱居)하며 민중식, 이시영등과 협의하여 의병을 규합하는 한편 전답 400여석분을 방매(放賣)하여 독립운동자금에 전담했다.

밀고한 자 있어 의병각부(義兵各簿)가 압수되어 400여명이 체포되자 이를 비관 단식 끝에 음독자살하였다. <일성록, 국조방목>

十 열녀 권씨 부인

부인께서는 안동 권씨 성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15세 그 당시 참관을 지내시는 이 정렬씨의 덕으로 시집을 오셨다. 그때 남편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았다. 13세의 어린 꼬마 신랑을 데리고 살아야만 하는 크나큰 길이 부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권씨 부인께서는 혼례를 올린지 석달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득한 일을 겪게 되었다. 남편이 별세를 한 것이다. 남편의 죽음은 곧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니 15세의 여자로서 겪어야 하는 외로움은 그 무엇도 채워 줄 수 없었다. 그 당시 권씨 부인의 시아버지께서는 참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가사에 대해서는 궁핍하거나 쪼들릴 것은 없었으나 객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좀 있었다. 집대문 밖을 나가 본 일이 없는 부인께서는 일생을 남편만을 생각하며 절개를 지켰다고 한다.

10) 종교단체

각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을 보면 오양골마을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설화리라는 마을에 새롭게 잘 장단된 절이 있는데 설화사와 설화당이라 부른다. 본래 이 자리에는 절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던 곳에 다시 절을 세우게 되었다. 삼막골 마을은 윗삼막골 안으로 들어서면 용화사와 월정사라 불리는 절이 두 개가 있고, 용화사가 월정사보다 먼저 지어진 것으로 신도수도 많고 절안에는 돌미륵이 보존되어지고

있다. 월정사는 입구부터 나무들로 무성하게 잘 꾸며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아랫삼막골에는 종교단체라 하기는 어렵지만, 무속인이 살고 있는데 집 앞에는 목이 잘린 돌미륵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사는 무속인이 그 돌미륵을 위하고 있다. 새마을마을에는 20년 정도 된 기독교인 송악감리교회가 있으며, 성도수는 150여명이 된다.

11) 공장현황

오양골마을은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일뿐더러 들어선다면 민속마을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삼막골마을에는 윗삼막골과 아랫삼막골 중간에 위성통신 시설인 데이콤이 자리하고 있는데 커다란 안테나가 여러개 웅장하게 설치되어 있다.

새마을에는 예전 송악농협이었던 건물을 개조하여 사슴엑기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力 송악농업협동조합 - 외암 583, 허가일 96. 4. 3. 면적 1,114,㎡ 종업원수 7, 사슴엑기스생산

12) 마을의 특성

오양골마을 사람들은 옛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민속마을로 지정된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는 만큼 예의가 갖추어진 마을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500여년전에는 강씨와 육씨가 살고 있던 혼성마을이었는데 조선 명종(1545~1567)때 장사랑을 지낸 이연일가가 이곳에 이주하였으며, 그후 후손들이 번창하고 인제가 배출되자 마을이 반촌의 면모를 갖추고 집도 격이 있는 반가가 생겨 나게 되었다. 마을 이름이巍巖으로 불리게 된 것은 연의 6세손인 이 간에 의해서인데 그는 숙종조에 난 수학자로 권상하의 문인이었다. 호를 설화산의 우뚝 솟은 형상을 따서 외암이라 지었는데 그의 호를 따서 마을 이름을 외암이라 불렀고, 그후 언제부터인지 한자동음으로 획수가 적은 外岩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마을은 비교적 반풍이 강하고 완고한 기질이 있는 듯하다. 한편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며 사소한 일에 쉽게 움직이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농업이 주이므로 세시풍속(歲時風俗)도 농경사회와 같이 지리적으로 한양과 가깝고 고관대작이 나왔으며 반가와 왕래가 잦아 서울의 풍속과도 커다란 차가 보이지 않는다. 정월 보름 전에 느티나무제를 지내고 연초에 따로 마을 어구에 있는 장승제를 지낸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

삼막골 마을의 주된 특성으로는 박씨들의 집성촌이라는것인데, 박씨도 밀양, 함양, 순천의 세 개파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마을에는 두 개의 돌미륵이 있는데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연대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아진다. 용화사에 있는 돌미륵은 코가 없는데 옛날 미륵의 코를 갈아 먹으면 아들을 난다고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며 코를 갈아 먹어 코가 없어졌다고 한다. 한마을에 절이 두 개나 위치하고 있어 마을을 들어서면 풍경소리에 익숙해지는 조용한 마을이다.

새마을 마을은 역사가 다른 마을에 비해 짧은 탓인지 애경사시 서로 돕기는 하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으며, 마을의 형태가 약간 불균형스럽다